

세계 양궁선수권 '얼짱' 선수들의 미모 대결



2일 울산문수체육공장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세계 각국의 '얼짱' 선수들이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가 지난 1일 사직원장을 끝으로 롯데와의 정규시즌 일정을 마감했다. 1일 1회말 무사 1·3루에서 롯데 김주찬이 홍성흔의 내야 땅볼때 홈에 들어오다 아웃되고 있다.

6승 → 12승 '뒤바뀐 먹이사슬'

〈작년 시즌〉 〈올 시즌〉

가을 잔치 앞둔 KIA, 정규시즌 롯데전 마무리 투타 고른 활약...작년 4강 탈락 아픔(?) 되갚아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대장정을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정규시즌 승부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KIA는 1일 사직구장에서 롯데와의 시즌 19차전을 벌이며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올 시즌 한 팀당 경기수가 126경기에서 133경기로 늘어나면서 각 팀끼리의 대결도 지난 해보다 한 차례 더 늘어나 19차전이 마지막 대결. 롯데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KIA는 4-3의 1점차 승부를 지키며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롯데와의 전적을 12승7패로 마감하며 지난해 6승12패의 부진을 그대로 만회했다. 뒤바뀐 승패처럼 KIA는 올 시즌 지난해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2008시즌 올림픽 브레이크전까지 팽팽한 4강 싸움을 했던 KIA는 LG전 2연패로 하반기를 시작했다. 하반기 시작 후 9경기에서 4승5패를 기록하며 밀려가던 KIA의 4강의 꿈은 롯데와의 홈 3연전에서 확실하게 부서졌다. 롯데에 싸움이 3연패를 당하며 KIA는 4강의 꿈을 접어야 했고, 무서운 기세로 하반기를 달린 롯데는 가을의 기적을 만들어 가을잔치에 초대받았다. 지난해 다른 팀들과 대등한 전적을 남긴

KIA는 SK, 롯데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SK에게 4승14패, 롯데에게 6승12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팀이 KIA의 가을잔치를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시즌 투·타에서 전력을 끌어올린 KIA는 무서운 기세로 롯데를 제압하며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7월 30일 롯데와의 사직원장에서 김상훈의 결승투런으로 연승을 시작한 KIA는 이후 8월12일 광주에서 다시 만난 롯데를 2-0으로 제압하며 11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희섭·나지완·김상훈·안치홍·이현근 등 다양한 선수가 롯데전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타선의 고른 활약속에서도 김상훈과 장성호의 활약은 눈부셨다. 김상훈은 4개의 홈런과 4개의 2루타로 17타점을 쏟아내며 세 차례 결승타의 주인공으로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다. 올 시즌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으로 출장기회가 적었던 장성호는 롯데전에 가장 많이 출전했다. 15번 롯데와의 경기에 출격한 장성호는 2개의 홈런과 10타점을 기록하며 세 차례 결승타를 만들어냈다. 마운드에서는 구름슨의 활약이 돋보였다. 구름슨은 롯데전에 3차례 등판해 1.19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챙겼다. 탈삼진은 21개를 뽑아냈다.

유동훈도 롯데전 12승을 완벽하게 조려했다. 롯데전에 11차례 등판해 11이닝을 소화한 유동훈은 무실점의 피칭으로 1승 4세이브 3홀드를 거머쥐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두산- KIA전 낮 경기로

일요일인 오는 13일 오후 5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예정인 두산과 KIA의 경기 시간이 오후 1시30분으로 바뀌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중파(KBS 1TV) 중계 요청으로 경기 시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 공중파 TV 중계는 4월4일 개막전 SK-한화, 5월3일 롯데-두산, 5월5일 어린이날 롯데-SK 등 세 경기뿐이었다.

진흥고 김정훈 히어로즈 입단

프로야구 히어로즈는 2일 양천구 목동구장 구단 사무실에서 2010년 신인 1차 지명 선수 김정훈(18·광주진흥고)과 계약금 1억 8천만원, 연봉 2천400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김정훈은 187cm의 좋은 체격 조건에 시속 140km 중반대 힘있는 직구를 주무기로 하는 우완 투수로 올해 전국대회에서 3승3패, 평균자책점 1.54를 기록했다. 김정훈은 구단을 통해 "한국 야구를 대표했던 투수인 김시진 감독님과 정민태 코치님의 지도를 받게 돼 설렌다"고 말했다.

KLPGA 첫 약물검사... 모두 이상무

"2009 하이원리조트컵 SBS 챔피언 여자 오픈"에 참가한 여자 골프 선수들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처음 실시한 약물검사를 모두 통과했다.

KLPGA는 지난 3월 경기총회에서 도핑테스트를 도입한 뒤 지난해 SBS 챔피언 여자 오픈 참가 선수들 대상으로 처음으로 약물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LPGA는 지난달 14일 대회 1라운드가 끝나고 참가선수 120명 중 무작위로 6명을 골라 시료를 채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외국에서 뛰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6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가족과 함께 뛰며 화합 다진다

"건강을 함께 지켜요"

■ 유탑마라톤동호회

유탑마라톤동호회(이하 유탑)는 설계·감리·CM 전문운영업체인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대표이사·김명수) 내 사원들의 마라톤모임이다. 임·직원이 700여명에 달하는 이 회사는 전국 현장 120여곳에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건설사업까지 리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달리기를 좋아하는 3명으로 시작된 유탑(회장·박삼수)은 현재 회원수가 30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기량 향상 못지않게 친목 도모에도 주력해 아직까지

순수 아마추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현재 유탑내 풀코스 완주자는 8명 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하프 또는 10km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 중 김명수 사장과 박삼수 동호회장은 하프코스 1시간30분대 주파로 팀내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풀코스에선 정재면 초대동호회장이 3시간30분대, 박삼수 회장이 3시간40분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재면 회원의 경우 100km울트라라는 물론 100마일런대회 등 철인대회에도 참가해 탄탄한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국 현장 누비며 체력관리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시간이 즐겁다'는 슬로건처럼 매년 6개 대회에 참가해 가족

들과 함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차례는 임·직원 등 사원 모두가 참가해 단합대회를 겸하기도 한다.

회원 30여명 순수 아마추어

유탑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다른 마라톤동호회와 함께 장거리와 스피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여름엔 나무 그늘이 많이 드리워진 화순너릿재에서 언덕 훈련을 실시했다.

팀내 가장 연장자인 권복남씨는 훈련마다 빠지지않고 참여하면서 하프코스 1시간 50분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정남성씨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앓고있던 축농증도 완쾌되었으며, 부부 마라토너로 참가대



가족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달려온 유탑마라톤동호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참가자 전원 완주를 목표로 힘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회마다 함께 출전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소장과 회원들은 기량을 향상시켜 하프코스는 1시간20분대, 풀코스는 3시간 이내

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활력 넘치는 직장생활과 건강한 가정은 꿈꾸며 틈틈이 달려온 유탑은 앞으로 농촌 일손돕기·무등산환경보존·광주천정화운

동 등 봉사활동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유탑의 힘찬 질주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